

알칸타라 플렉센 페르난데스

두산 전력누수 최소화 관건 외국인선수 3총사를 잡아라

김태룡 단장 “외국인 3명 모두 재계약 방침”

한국시리즈(KS) 준우승으로 2020시즌을 마무리한 두산 베어스는 어느 팀보다 바쁜 스토브리그를 보내야 한다.

올 시즌이 끝나고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9명 중 7명이 팀의 핵심 자원이다. 투수 이용찬, 유희관, 내야수 허경민, 최주환, 오재일, 김재호, 외야수 정수빈이다. 모두 지난해 통합우승과 올해 6년 연속 KS 진출에 작지 않은 힘을 보탠 이들이다. 구단 고위관계자는 “모두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워낙 경쟁력이 뛰어난 선수들이기에 잔류를 장담할 수만은 없다. 2020시즌이 이른바 ‘왕조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전력누수를 최소화할 방법은 외국인선수 3명의 재계약이다. 올 시즌 투수 라울 알칸타라와 크리스 플렉센, 타자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가 팀에서 차지한 비중은 그야말로 엄청났다.

외국인 원투펀치 알칸타라와 플렉센의 활약은 대단했다. 알칸타라는 비록 포스트시즌(PS)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정규시즌 31경기에서 1완투승을 포함해 20승 2패, 평균자책점(ERA) 2.54의 성적을 거뒀다. 시속 150km대의 빠른 공을 지닌 데다 198.2이닝 동안 30개의 볼넷만 허용한 제구력까지 뒷받침돼 상대 타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특히 올 시즌을 앞두고는 스플리터를 연마해 결정구로 활용하면서 위력을 배가시켰다. 소위 말하는 ‘공 빠르고 제구 되는 투수’의 표본으로 가치를 엄청나게 올렸다.

플렉센은 발등 골절상으로 정규시즌 중 2개월간 결장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PS 4경기에서 2승1패1세이브, ERA 1.91(28.1이닝 6자책점), 32삼진의 눈부신 투구로 에이스 본능을 뽐냈다. 시속 150km대 강속구와 커브의 조합에 높은 타점을 더하니 그야말로 무적이었다. 알칸타라와 플렉센 모두 엄청난 위력을 보여준 터라 메이저리그(ML)는 물론 일본프로야구(NPB) 팀과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플렉센은 “내년에도 두산으로 돌아오고 싶다”며 애정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함께한 페르난데스는 올해도 정규시즌 144경기에 모두 출장해 타율 0.340(586타수 199안타), 21홈런, 105타점을 올리며 최다안타 부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년간 단 한 경기도 거르지 않은 꾸준함은 페르난데스의 최대 강점이다. 계약 첫해인 2019시즌에도 계약 총액(70만 달러)의 절반(35만 달러)이었던 옵션을 전반기만 뛰고 충족시키는 괴력을 뽐냈는데, 올해는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팀 타선의 중심을 잡아줬다. 주축 야수들의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올 시즌을 통해 이승진, 홍건희, 김민규 등의 젊은 피를 발굴하며 미래를 밝혔기에 외국인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면, 전력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두산 김태룡 단장도 25일 전화통화에서 “외국인선수 3명은 모두 재계약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산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코로나 시대’ 사고 없이 완주한 720+13경기…모두에게 박수를!



코로나19의 여파로 숱한 위기를 겪었지만, KBO리그는 경기일정 단축 없이 포스트시즌까지 모두 무사히 마쳤다. KBO는 기민하게 대처하고, 구단과 선수들은 적극 호응하고, 팬들은 방역수칙을 잘 따라준 합작품이다. 24일 고척돔에서 열린 두산-NC의 한국시리즈 6차전 때도 입장한 팬들은 방역수칙대로 행동했다. 고척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방역수칙 잘 지켜준 팬들이 진짜 영웅

144경기 체제…개막 전부터 우려
매 경기 철저한 방역 끝 무사 완주
직원·선수단 그리고 팬들의 노력
KBO도 PS 운영비 절반 넘게 줄여

시작조차 힘들 것 같다고 여겨졌지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축소 없이 완주해냈기에 의미는 더욱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정규시즌 팀당 144경기와 포스트시즌(PS) 13경기를 소화한 KBO리그의 39번째 시즌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다.

KBO리그는 24일 고척돔에서 열린 한국시리즈(KS·7전4승제) 6차전에서 NC 다이노스가 두산 베어스를 4-2로 꺾으면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NC가 창단 첫 통합우승을 차지하는 순간 이를 지켜본 관중은 1670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정원의 10%만 입장이 가능했다. 일각에선 1670명의 관객을 두고 매진의 구색이 맞지 않다고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코로나19가 갈수록 퍼져가는 상황에서도 가을축제를 지켜보기 위해 찾아준 팬들의 고마운 발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스프링캠프를 떠나는 시점부터 국내에도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됐다. 이 때문에 일부 팀들은 해외 캠프를 연장하는 등 귀국을 미루기도 했다. 시즌 개막 여부조차 불투명했고, 144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회의론도 커졌다. 하지만 KBO 입장에선 이미 중계 및 스폰서십 계약을 마무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려웠다. 결국 5월 5일 무관중으로 지각 개막했다. 총 720경기 중 팬과 함께 소화한 것은 143경기(19.9%)뿐이다.

야구장 직관의 빗장은 7월 26일 풀렸지만, 8월 23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문이 닫혔다. 팬들은 정규시즌 종료 직전인 10월 13일에야 야구장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PS에서도 전체 정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했지만,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다시 30%, 10%로 관중입장이 축소됐다.

하지만 철저한 방역 덕분에 야구장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다. 개막을 앞두고 가장 우려됐던 점도 선수단, 그리고 팬들이 야구장에서 감염되는 것이었다. 재활군 선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이슈 없이 모든 시즌을 마무리했다. 육성응원 없는 야구장은 앙꼬 없는 찐빵처럼 여겨졌지만, 팬들은 KBO의 엄격한 방역수칙을 잘 따랐다. 팬들의 노력 없이는 결코 이룩할 수 없는 성과였다.

KBO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KS 종료 직후 KBO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PS 총 예상수입은 약 38억 원. 이 중 운영비인 16억8000만 원을 제외한 21억 원 가량이 PS 진출팀에게 돌아간다. 통합우승팀 NC 다이노스는 12억7000만원을 받는다. 전년도에 비하면 절반 넘게 줄어든 금액이지만, 이만한 배당금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방역 준수를 위해 오히려 예년보다 더 많은 안전요원을 투입하는 등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었지만, KBO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PS 운영비도 절반 넘게 줄였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NC 우승 배당금 12억7000만원 반 토막…코로나 시대의 아픔

지난해 두산 배당금의 47% 수준
전체 PS 관중 9만6082명에 그쳐

올해 KBO리그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KS)를 모두 제패한 NC 다이노스의 배당금은 12억7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통합우승을 달성한 두산 베어스가 챙긴 27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반 토막이 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관중수익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KBO는 포스트시즌(PS) 총 입장수입에서 약 50%를 운영비로 지출한 뒤 20%를 정규시즌 1위에 배분한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KS 우승팀 50%, 준우승팀 24%, 플레이오프(PO) 진출팀 14%, 준PO 진출 팀 9%, 와일드카드 결정전(WC) 패배팀 3%의 순으로 분배한다.

지난해 PS 12경기(WC 1경기·준PO 4경기·PO 3경기·KS 4경기)의 총 입장수입은 87억9982만1000원으로, 이 가운데 KBO가 사용한 운영비는 40억 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우승을 차지한 두산이 약 2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뒤 준우승팀 키움 히어로즈가 8억 원, 3위 SK 와이번스가 5억 원, 4위 LG 트윈스가 3억 원, 5위 NC가 1억 원의 배당금을 각각 챙겼다.

그러나 KBO에 따르면, 올해 총 입장수입은 약 38억 원에 그쳤다. 이 금액의 44%인 약 16억8000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분배금 총액은 약 21억 원으로 지난해 두산이 받은 배당금에도 못 미친다.

NC는 정규시즌 우승 배당금 4억2000만 원, KS 우승 배당금 8억5000만 원을 더한 12억7000만 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두산이 받은 배당금의 47% 수준이다. 준우승한 두산은 4억2000만 원, KT 위즈는 2억2000만 원, LG는 1억5000만 원, 키움은 5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PS 관중은 지난해 12경기에서 끌어모은 23만4799명의 41% 수준인 9만6082명으로 집계됐다.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수치다. WC부터 KS 2차전까지는 구장 정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했으나, KS가 한창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악재가 겹쳤다. 19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서 KS 3~5차전은 고척돔 정원의 30%(5100명),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6차전은 10%(1670명)의 관중입장만 가능했다. KS에서 매진 행렬이 계속됐던 점과 고척돔 정원의 50%가 8200명임을 고려하면, 1만2730명분의 입장수입을 놓친 셈이다. 코로나19 시대의 슬픔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최형우

‘기부천사’ 최형우, 사회취약계층 돕기에 1억원 선뜻

2017년 2억원…매년 모교에 나눔
두산 알칸타라도 1000만원 기부

KIA 타이거즈 외야수 최형우(37)가 따뜻한 소식을 전했다.

KIA는 25일 “최형우가 최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형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국제 구호 NGO ‘글로벌쉐어’에 1억 원을 전달했다.

최형우의 기부금은 보육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최형우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오랜 시간 선수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 나눔에 동참했다”고 기부 배경을 전했다. 이어 “지난해 아빠가 된 이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앞으로도 꾸준히 취약계층 후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형우가 훈훈한 소식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에는 유소년야구기금으로 2억 원을 기부했다. 또 모교인 전주 진북초교와 전주고에 매년 야구용품 또는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몸으로 실천하는 나눔도 지속해왔다. 유소년야구선수들을 직접 만나 ‘원 포인트 레슨’을 하는 등 재능기부 활동을 잠시도 쉬지 않았다.

최형우는 2017시즌을 앞두고 KIA와 100억 원의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했다. 계약 첫 해 팀의 통합우승을 이끈 뒤로도 꾸준한 활약으로 ‘착한’ FA의 표본을 보였다. 4년을 다시 채운 그는 2021시즌을 앞두고 2번째 FA 자격을 얻어 또 한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산 베어스 외국인투수 라울 알칸타라도 25일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올해 ‘부산은행 최동원상’을 수상한 그는 상금 2000만 원의 절반인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알칸타라가 1000만 원을 의미 있는 일에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업회는 500만 원씩을 유소년야구 지원과 울산 남부소방서 격려금 목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